

한국 청년 성소수자(LGBTQ+)의 커밍아웃과 정신건강: 커밍아웃 대상별 잠재프로파일 분석(LPA)을 중심으로

박 기 택¹⁾ 윤 혜 영^{*}

본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는 청년 성소수자(LGBTQ+)의 커밍아웃 대상 및 수준에 따라 잠재 프로파일이 구분되는지 확인한 후, 구분된 잠재 계층별 삶의 질, 직장에서의 어려움, 우울 및 정신건강 관련 변수들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또한 내면화된 동성애 혐오, 정체성 수용에 걸린 시간, 커뮤니티와의 연결감이 프로파일 구분을 예측하는지 살펴보았다. <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조사> 자료의 1,570명의 표본을 바탕으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수행한 결과 5개의 잠재프로파일 모형이 식별되었다. 내면화된 동성애 혐오와 커뮤니티와의 연결감은 잠재프로파일 구분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나, 정체성 수용에 걸린 시간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잠재프로파일에 따라 우울, 직장에서의 어려움과 주관적 행복에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으나, 삶의 질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직장과 심리상담, 의료진에 선별적으로 커밍아웃을 한 5번 프로파일(‘직장-전문가 공개형’)의 경우 가장 높은 우울 수준을 보였으나, 주관적 행복이 가장 높았으며, 직장에서의 어려움이 가장 낮았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청년 성소수자들의 커밍아웃과 정신건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성소수자(LGBTQ+), 커밍아웃, 주관적 행복, 정신건강, 잠재프로파일 분석

1) 계명대학교 심리학과, 석사 졸업

* 교신저자 : 윤혜영, 계명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41566), 봉경관 451-1호,
Tel: 053-580-5498, Email: hoggert1@kmu.ac.kr

 Copyright ©2026,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서론

커밍아웃(Coming-out)은 성소수자 개인이 자신의 성적, 성별 정체성과 소수자적 위치를 자각하고 이를 외부에 드러내는 과정을 의미한다(Hill, 2009). Cass(1984)는 이 과정을 정체성 공개(disclosure)라는 용어로 명명하며, 사회적 낙인과 결부된 정체성을 통합하여 긍정적인 자기 이해에 도달하는 정체성 발달 과정의 일환으로 보았다.

정체성을 공개하는 행위는 성소수자의 사회적 가시성을 높이고 지지적 커뮤니티와의 연결성을 강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Alonzo & Buttitta, 2019). 실제로 커밍아웃은 심리적 고통과 자살률을 낮추고(Pachankis et al., 2020; Morris et al., 2001), 우울과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Legate et al., 2012; Wainipitapong et al., 2025).

그러나 커밍아웃은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과 반(反)동성애 폭력에 노출될 위험을 높여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들도 존재한다(강병철, 하경희, 2006; Harrison, 2003). 또한 정체성을 은폐하기 위해 반동성애 폭력, 혐오에 가담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죄의식과 자기혐오, 수치심 등을 경험할 수 있으며(최현정, 2020), 이는 개인의 안녕과 자기상에 해로울 수 있다(Berzon, 2001). 즉, 배척과 낙인, 차별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Bonet et al., 2007; Harrison, 2003), 성소수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공개하기에 앞서 옷을 입는 방법 등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미묘하게 노출해 환경의 안전함을 평가하는 가시성 관리(visibility management)의 과정을 선행한다(Dewaele et al., 2013).

Meyer(2003)의 소수자 스트레스 모델(minority stress model)에서는 정체성에 대한 은폐(concealment)를 소수자 스트레스로 간주한다. 부정적인 인식과 반동성애 폭력 등 외부 환경으로부터 가해지는 소수자 스트레스 사건(distal minority stressor)은 개인이 자신의 낙인찍힌 소수자 지위를 인식하게 하고, 이러한 차별적 경험을 정체성의 일부로 내면화하게 만들며(내면화된 동성애 혐오; internalized homonegativity), 정체성을 은폐하도록 만들 수 있다(concealment). 선행 연구들은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성소수자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이현정, 유금란, 2024; Bostwick et al., 2014; Dürrbaum & Sattler, 2020; Hatzenbuehler et al., 2008; Newcomb & Mustanski, 2010; Riggle et al., 2017).

주변 환경이 소수자에게 친화적이지 않다고 느끼거나, 거부당할 것이라 예상한다면 커밍아웃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은폐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즉, 정체성에 대한 은폐는 기본적으로 주변으로부터 수용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에 기초하며(Feinstein, 2020), 소수자 스트레스 모델에서는 성소수자들이 이러한 사회의 혐오와 차별을 내면화한 것을 내면화된 동성애 혐오라 칭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소수자들은 더 친근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특정 집단에만 커밍아웃하는 반면, 다른 집단에는 커밍아웃하지 않을 수 있다(Solomon et al., 2015). 선행 연구에선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공개하고 은폐하는 것의 심리학적 결과는 그 대상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언급하였으며(Goldbach & Gibbs, 2017; McCurdy et al., 2023), 가족과 같은

친밀한 관계에 대한 커밍아웃은 스트레스와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고가 존재한다(Knoble & Linville, 2012; Tasker et al., 2010; Wainipitapong et al., 2025). 특히 Wainipitapong 등(2025)은 커밍아웃과 정신건강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하여 성소수자는 커밍아웃을 통해 기쁨과 만족, 진실된 감정을 느낄 수 있음을 논의하였으며, 동료 학생과 교사에게 더 많이 커밍아웃한 성소수자 청소년들은 우울감이 낮고 자존감이 높았다는 보고가 존재한다(Kosciw et al., 2015). Caba 등(2022)은 청소년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정체성을 공개한 대상과 수준에 따라 잠재계층을 구분하였으며, 낮은 수준으로 정체성을 공개한 계층은 더 우울한 경향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반면에 커밍아웃을 통해 가족, 친구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 때문에 커밍아웃하지 않고 은폐를 선택할 경우 심리적 긴장과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Feinstein, 2020; Grov et al., 2006).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청소년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커밍아웃 수준이 아닌 부모나 주변의 반응 수준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분석이 주를 이뤘다.

선행 연구에서는 커밍아웃하기까지 걸린 시간과 자신의 정체성을 수용하는 데 걸린 시간이 내면화된 동성애 혐오와 상관성이 있으며, 커밍아웃 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안한다(Cox et al., 2010). 성소수자의 정체성 형성과 상징적 상호작용론(the symbolic interactionist perspective)에 따르면 사회적 환경은 성소수자에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조망을 제공하고, 커밍아웃 과정을 지각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안한다(Javaid, 2025). 또한 Dolence 등(2025)과 Crancy 등(2018)의 연구에서는 커뮤니티와의 연결이 성소수자의 소수자 스트레스

과정을 완화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성 정체성 관련 거부 민감성을 완충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Dolence et al., 2025). 성 정체성 관련 거부 민감성은 커밍아웃 수준과 관련이 있기에(Feinstein, 2020; Kiekens et al., 2023), 커뮤니티와의 연결성은 성소수자의 커밍아웃 수준과 관계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직접으로 검증한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성소수자는 많은 장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은폐하며, 이는 직장 내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2022)이 발표한 <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하는 성소수자 청년 중 73.3%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거나 속였다고 응답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받거나, 생산성이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김지선 등(2024)의 연구에서는 근로자인 성소수자의 90% 이상이 상사, 선배에게 80% 이상이 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우려하여 직장 동료에게 자신의 성소수자 정체성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보고하며, 직장에서 경험하는 성소수자에 대한 미묘한 차별이 직무 만족감과 부적, 우울과 정적인 상관성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Madera 등(2012)에 따르면 성소수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직장에서 표현할 수 있을 때 인식된 차별이 감소하고, 직무 만족도도 증가할 수 있으며, 표현하지 못할 때 오히려 인식된 차별의 수준이 증가할 수 있다. 이는 직장 내에서의 정체성 공개가 직무 만족도와 직장 내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의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커밍아웃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Knoble & Linville, 2012; Pachankis et al., 2020;

Tasker et al., 2010; Wainipitapong et al., 2025).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누구에게 공개, 혹은 은폐하였는지, 이로 인한 심리학적 결과는 어떠한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커밍아웃의 대상과 수준에 따라 심리학적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선행 연구에도 불구하고 (Hanna-Walker et al., 2024),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커밍아웃을 단순 수준에 따른 변수로 모형에 투입하여 주효과만을 분석하였으며, 따라서 커밍아웃 수준과 정체성 공개에 걸린 시간이 성소수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Solomon et al., 2015), 커밍아웃한 대상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이 혼재되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Riggle et al., 2017; Ryan et al., 2015). 국외에서 McCurdy 등(2023)은 커밍아웃에 따른 가족의 반응이 청소년 성소수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Hanna-Walker 등(2024)은 다양한 성별 정체성을 가진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가족에게 커밍아웃한 양상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를 분석한 바 있으나, 두 연구 모두 표본이 청소년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가족에 대한 반응만을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국내에선 정성조와 이희영(2023)이 실제 정체성 공개의 정도뿐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 따라 정체성을 공개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여 잠재집단분석을 시행한 바 있지만, 단순 정체성 관리 수준과 커밍아웃 수준이 사회학적 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을 뿐 도출된 잠재집단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외의 커밍아웃 대상과 수준에 따른 사람 중심 분석을 적용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성을 향한 지속

가능한 움직임 ‘다음’(2022; 이하 “다음”)의 <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 성소수자의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 수준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성소수자 개인의 정체성을 누구에게, 얼마나 공개했는지가 정신건강에 주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선행 연구를 고려할 때 (Hanna-Walker et al., 2024; Solomon et al., 2015), 기존 변수 중심 분석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람 중심 분석인 잠재프로파일 분석(LPA)을 사용하여, 커밍아웃 대상과 수준에 따라 정신건강 변수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해당 연구에서는 LPA의 결측치를 줄이기 위하여 직장이 있는 표본만을 선정해 분석을 실시했으며, 직장 내 어려움의 정도는 많은 선행 연구에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분석되었지만, 커밍아웃 수준이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줬다는 Madera 등(2012)의 연구에 따라 커밍아웃에 따른 영향 또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장에서의 어려움을 LPA의 결과변수로 투입하여 커밍아웃 양상에 따라 직장에서의 어려움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커밍아웃 대상 및 수준에 따른 잠재프로파일은 몇 개의 집단으로 구분되는가?

연구문제 2. 내면화된 동성애 혐오, 정체성 수용에 걸린 시간, 커뮤니티와의 연결감은 잠재프로파일의 구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3. 구분된 잠재프로파일에 따라 삶의 질, 주관적 행복, 주관적 건강 상태, 우울 및 직장 내 어려움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는 청년 성소수자(LGBTQ+)의 커밍아웃 대상 및 수준에 따라 잠재프로파일을 구분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소수자 스트레스 요인을 살펴본 뒤, 각 계층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움”(2022)의 허가를 받아 <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해당 자료는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의 <2021 청년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집된 자료이며, 국내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청년 성소수자 3,911명이 응답하였다. 해당 자료에서는 성소수자 관련 커뮤니티, 차별 경험, 사회적 환경 및 정치적 욕구, 건강 및 심리 상태, 노동 및 경제 등의 항목이 조사되었으며, 2021년 8월 11일부터 9월 7일까지 수집되었다.

커밍아웃 대상 및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가

족, 친구, 직장 동료 및 상사, 심리 및 의료 전문가 등 8개의 집단에 대하여 자신의 성소수자 정체성을 얼마나 커밍아웃하였는지 질문한 문항을 사용하여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직장’에 따른 커밍아웃 수준을 포함하여 분석하기 위해 직장 동료 및 상사에 대한 커밍아웃 문항에서 ‘해당 없음’에 응답하였거나, 인구통계학적 문항에서 직업에 ‘학생’,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무직’으로 응답한 응답은 결측치로 처리하여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총 1,570명의 표본을 분석하였다.

해당 분석에 포함된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만 25세에서 만 29세’에 해당하는 표본이 688명으로 전체의 43.83%를 차지했으며, ‘만 19세에서 만 24세’에 해당하는 표본이 324명(20.63%)으로 가장 적었다. 데이터 처리 전 ‘만 19세에서 만 24세’ 표본이 가장 많았고, ‘만 30세에서 만 34세’ 표본이 가장 적었던 것과 다른 결과이며, 이는 표본 중 직업이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을 제외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성적 지향 중에선 ‘게이’가 655명(41.72%)으로 가장 많았

표 1. 분석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 = 1,570)

변인		빈도(%)
	전체	1,570 (100.00)
연령(만)	19-24	324 (20.63)
	25-29	688 (43.83)
	30-34	558 (20.63)
출생 시 법적 성별	여성	745 (47.45)
	남성	825 (52.55)
성별 정체성	여성	606 (38.60)
	남성	757 (48.22)
	논바이너리/퀴어	207 (13.18)

표 1. 분석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 = 1,570$)

(계속)

	변인	빈도(%)
성적 지향	레즈비언	295 (18.79)
	게이	655 (41.72)
	양성애자	289 (18.41)
	범성애자	134 (8.54)
	무성애자	78 (4.97)
	퀴어	84 (5.35)
	기타	27 (1.72)
직업	경영/관리직	22 (1.40)
	전문직	100 (6.37)
	사무/기술직	629 (40.06)
	서비스 종사자	110 (7.01)
	판매/서비스직	93 (5.92)
	교육직	156 (9.94)
	자영업	62 (3.95)
	기능/숙련공	17 (1.08)
	자유직	172 (10.96)
	기타(비영리 단체 등)	209 (13.32)
정치적 성향	보수	208 (13.24)
	중도	454 (28.92)
	진보	908 (57.83)
주관적 계층	상층	23 (1.46)
	중상층	200 (12.74)
	중층	551 (35.10)
	중하층	636 (40.51)
	하층	160 (10.19)
월평균 소득	150만원 미만	331 (21.08)
	150-250만원 미만	584 (37.20)
	250-350만원 미만	406 (25.86)
	350-450만원 미만	129 (8.22)
	450만원 이상	120 (7.65)

고, ‘레즈비언’과 ‘양성애자’는 각각 295명(18.79%), 289명(18.41%)으로 비슷한 비율을 차지했다. 직업은 ‘사무/기술직’이 629명(40.06%)으로 가장 많았고, 이후 ‘기타’ 209명(13.32%), ‘자유직’ 172명(10.96%) 순이었다. 정치적 성향은 ‘진보’ 성향으로 응답한 표본이 908명(57.83%)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관적인 사회경제학적 계층(socioeconomic status; SES)은 ‘중하층’으로 응답한 표본이 636명(40.51%), ‘중층’으로 응답한 표본이 551명(35.1%)이었고, ‘상층’이 23명(1.46%)로 가장 적었다. 월 평균 소득에 대해서는 ‘150-250만원’이 584명(37.20%), ‘250-350만원’이 406명(25.86%)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 도구

커밍아웃의 대상 및 수준

LPA의 지표변수로 커밍아웃 대상 및 수준을 활용하기 위하여, Meyer 등(2002)이 개발한 커밍아웃 척도를 사용했다. 해당 조사에서는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2020)에서 <A Long Way to Go for LGBTI Equality> 조사 시행 시 재구성한 버전의 척도를 사용했다(FRA, 2020; 정성조, 이희영, 2023). 해당 척도는 8개의 사회적 관계(‘어머니’, ‘아버지’, ‘형제자매’, ‘성소수자가 아닌 친구’, ‘직장 동료’, ‘직장 상사’, ‘심리상담전문가’, ‘의료진 등 건강전문가’)에 대해 본인의 성소수자 정체성을 공개한 정도를 ‘전혀 모름’, ‘일부 알고 있음’, ‘대부분 알고 있음’, ‘모두 알고 있음’, ‘해당 없음’으로 응답한다. 해당 분석에서 ‘해당 없음’ 응답은 결측치로 처리하여 Listwise 방식으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원 조사에서 성소수자 정체성 공개 정도를

응답한 방식이 문항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3가지 응답(전혀 모름, 대부분 알고 있음, 모두 알고 있음)으로 응답된 ‘어머니’, ‘아버지’, ‘형제자매’ 항목의 경우 1점(전혀 모름)에서 3점(모두 알고 있음)의 3점 Likert 척도로, 나머지 문항은 1점(전혀 모름)에서 4점(모두 알고 있음)의 4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문항이 설정되었다. 이로 인해 문항별 응답 점수의 범위가 다르다는 문제가 발생하여, LPA의 지표 변수로 투입하기 위해 표준 점수(Z-score)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78이었다.

내면화된 동성애 혐오 척도

내면화된 동성애 혐오 수준은 한국게이인권 운동단체 친구사이(2016)에서 진행한 <한국 성인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건강 연구>의 내면화된 동성애 혐오 척도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지난 한 해 동안 본인이 선택한 성적 지향에 대해 거부감을 느낀 정도와 ‘나는 이성에게 좀 더 에로틱한 감정이 생겼으면 좋겠다.’ 등 이성애자로 복귀하고자 했던 생각, 행동 등을 측정하는 9문항 척도이다. 각 문항에 대하여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자주 그렇다)의 4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게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면화된 동성애 혐오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해당 척도는 성적 지향이 이성애자가 아닌 사람들만 응답하게 되며, 표본 중 트랜스젠더인 243명의 응답이 결측치로 제외되어 총 1,327명의 응답만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8이었다.

커뮤니티와의 연결감

자신이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연결되어 있다

고 느끼는 정도가 잠재프로파일의 구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Meyer와 Choi (2020)의 연구에서 사용된 'LGBT Community Connectedness' 척도를 해당 조사에서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나는 내가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일부라고 느낀다.' 등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자신이 연결된 정도를 질문하는 7문항 척도이며, 1점(매우 동의하지 않음)에서 4점(매우 동의함)의 4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게 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이 커뮤니티와 연결된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7이었다.

정체성 수용에 걸린 시간

본인의 성적, 성별 정체성을 수용하는 데 걸린 시간이 잠재프로파일의 구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자신의 성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진 나이'에서 '자신의 성소수자로서의 성향을 최초로 인지한 나이'를 차감하여 '정체성 수용에 걸린 시간'을 계산하였다. 본 표본에서 정체성 수용에 걸린 평균 시간은 3.67($SD = 4.52$)년이었다.

삶의 질

구분된 잠재프로파일 간 삶의 질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의 주관적인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Diener 등(1985)이 제작하고 조명한과 차경호(1998)가 번안한 삶의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전반적으로 볼 때, 나의 삶은 나의 이상에 가깝다.' 등을 묻는 5개 문항의 척도이며, 각 문항에 대해 1점(강한 부정)부터 7점(강한 동의)의 7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게 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인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척도의 내적 일

치도(Cronbach's α)는 임영진(2012)의 연구에서 .84에서 .91,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는 .88이었다.

우울

구분된 잠재프로파일 간 우울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에서 진행한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서 청년들의 우울 증상의 심각도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한 11개 문항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지난 일주일 동안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등의 문항에 대하여 1점(극히 드물다(일주일에 1일 미만))에서 4점(대부분 그랬다(일주일에 5일 이상))의 4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게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증상이 심각한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68이었다.

직장에서의 어려움

구분된 잠재프로파일 간 직장에서 경험한 어려움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2014)의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에서 성소수자 정체성으로 인해 직장 내에서 경험한 어려움을 묻는 9문항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정체성을 숨기기 위해 조심해야 하므로 스트레스가 심하다' 등의 문항에 대해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의 4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며, '해당 없음'으로 응답한 경우 결측치로 처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소수자 정체성으로 인해 직장 내에서 경험한 어려움이 높다고 해석하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7였다.

자살 사고 및 자살 시도

구분된 잠재프로파일 간 자살 사고의 빈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에서 진행한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서 청년층의 자살 사고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지난 1년 동안 자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경험'의 유무를 '예' 혹은 '아니오'로 응답한 단일 문항이었다. 본 척도는 이분 변수이기에 LPA의 결과변수로 포함할 수 없어, '없음'을 0으로, '있음'을 1로 재코딩하여 자살 사고의 빈도를 계산하고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잠재프로파일 집단 간 자살 시도 경험의 빈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2020)의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에서 사용했던,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시도한 경험'의 유무를 '예' 혹은 '아니오'로 응답하게 하는 단일 문항을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 또한 이분 변수이기에 '없음'을 0으로, '있음'을 1로 재코딩하여 자살 시도의 빈도를 계산하고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거주하는 청년의 커밍아웃 대상 및 수준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잠재 집단이 분류되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내면화된 동성애 혐오, 정체성 수용에 걸린 시간, 커뮤니티와의 연결감이 프로파일 구분에 미친 영향을 탐색하였으며, 구분된 잠재프로파일에 따라 삶의 질, 우울 및 직장에서의 어려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음(2022)에서 수집한 <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조사>의 데이터를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가장 먼저, SPSS 버전 29.0.2.0을 사용하여 결측치를 처리한 뒤, 분석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변수들을 재코딩하였다. 이때 직업이 '학생',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무직'인 사람들과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의 조합 상 '시스젠더 이성애자'인 사람들을 결측치로 처리하여 분석에서 배제하였다. 다음으로, LPA 구분전, SPSS 버전 29.0.2.0을 사용하여 변인 간 기술 통계 및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이후, 청년 성소수자의 커밍아웃 대상 및 수준에 따라 잠재프로파일이 구분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Mplus 버전 7.4을 통해 3단계 잠재프로파일 분석(3-step LPA)을 실시하였다. 잠재프로파일 분석은 특정 집단의 문항 반응 패턴을 분석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질적인 잠재 집단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분석 방식이다(Muthén & Muthén, 2007; Pastor et al., 2007). 그중 3-step 방식은 독립 및 결과변수가 잠재프로파일과 함께 모형에 포함되어 프로파일 분류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Asparouhov & Muthén, 2014), 분류 오류를 고려할 수 있어 잠재프로파일을 추출하여 진행하는 분석에 비해 더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홍세희, 2019; No & Hong, 2018).

3-step LPA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커밍아웃 척도를 지표변수로 설정한 후 잠재프로파일을 구분하였으며, 최적의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구인하기 위해 계단식 추가 방법(Stepwise addition)을 시행한다.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1개에서부터 하나씩 늘려가며, 정보지수와 Entropy 지수를 비교해가며 최적의 모형을 구인한다(최윤, 이왕원, 2015). 본 연구에서는 Entropy 지수와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a),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a), saBIC(Sample-size Adjusted BIC)를 검토한 뒤 부트스트랩 우도비 검정(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 BLRT), LMR-LRT(Lo-Mendell Rubin Likelihood Ratio Test)를 통해 최적의 잠재프로파일 수를 결정하였다. Entropy 지수는 분류의 질을 평가하는 지수로 1에서 0 사이의 값을 가지며, LPA에서는 .80 이상일 경우 90% 이상이 제대로 분류되었다 해석하며(Muthén, 2004), 본 연구에서도 0.80 이상인 집단만을 채택하였다. 정보지수인 AIC, BIC, saBIC는 값이 작아질수록 모델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Lin & Dayton, 1997). 또한 BLRT와 LMR-LRT를 사용하여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연구자가 지정한 k개인 모델과 그보다 더 간명한 k-1개인 모델 간의 차이를 검정하여 통계적 차이가 유의할 경우 상대적으로 더 복잡한 잠재프로파일의 개수가 k개인 모델을 채택하는 k-1 검정을 사용하여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권재기, 2014). 이때 이론적으로 타당한 해석을 위하여 각 프로파일에 할당된 표본의 비율이 최소 5% 이상이 될 수 있는 잠재프로파일 모형을 선정하였다(Hill et al., 2000).

3-step LPA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추출된 잠재 집단의 사후 집단 소속 확률을 계산한다. 사후 집단 소속 확률은 각 표본이 실제로 해당 프로파일에 분류될 가능성에 대해 평가하는 지표이며, 일반적으로 사후 집단 소속 확률이 .70보다 높을 때 분류의 질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Nagin, 2005).

3-step LPA의 세 번째 단계에서는 구분된 잠재프로파일과 예측, 종속 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우선 각 잠재프로파일을 종속 변수로, 내면화된 동성애 혐오, 정체성 수용에 걸린 시간, 커뮤니티와의 연결감을 독립 변수로

설정된 뒤 R3STEP 방식을 통해 독립 변수가 잠재프로파일 구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이후 잠재프로파일을 독립 변수로, 삶의 질, 주관적 행복, 주관적 건강 상태, 우울, 직장에서의 어려움을 종속 변수로 BCH 방식의 평균 차이 비교를 시행하였으며, 이분 변수였던 자살 사고와 시도 경험에 대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계명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연구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 (IRB No: 40525-202502-HR-100-01).

결 과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주요 변수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SPSS 버전 29.0.2.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분석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기술통계 분석 결과 왜도와 첨도의 값이 각각 절댓값 3과 10 이상인 변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데이터는 정규성의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line, 2015).

상관분석 결과 대부분의 변수들에서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유의한 수준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그 크기는 약하거나 중간 수준이었다.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삶의 질과 우울이었다($r = -.46, p < .001$). 그 밖에 내면화된 동성애 혐오 수준은 모든 변수들과 유의한 상관이 존재했으며, 정체성 수용에 걸린 시간($r = .16, p < .001$), 우울($r = .11, p < .001$), 직장에서의 어려움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r = .14, p < .001$), 커뮤니티와의 연결감

표 2.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 및 평균 및 표준편차

	CO	IH	Ac_T	CC	Well	Dep	Work
CO	-						
IH	-.21***	-					
Ac_T	.03***	.16***	-				
CC	.25***	-.28***	.03	-			
Well	.02***	-.10***	.01	.09***	-		
Dep	.13***	.11***	.01	.01***	-.46***	-	
Work	.06***	.14***	.06	.11***	-.17***	.23***	-
평균	11.19	13.58	3.67	19.01	19.09	22.26	21.71
SD	3.80	5.51	4.52	4.31	6.98	5.01	7.47
왜도	1.24	1.68	1.09	-0.12	-0.02	0.95	0.69
첨도	1.70	2.75	2.77	0.02	-0.87	0.62	0.89

Note. CO = 커밍아웃 수준, IH = 내면화된 동성애 혐오 척도, Ac_T = 정체성 수용에 걸린 시간, CC = 커뮤니티와의 연결감, Well = 삶의 질, Dep = 우울, Work = 직장에서의 어려움.

($r = -.28, p < .001$), 삶의 질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r = -.10, p < .001$). 내면화된 동성애 혐오 수준이 증가할수록 정체성 수용과 우울, 직장에서의 어려움이 함께 증가하며, 커뮤니티와의 연결감과 삶의 질은 낮아지는 양상이었다.

또한 커밍아웃 수준이 증가할수록 우울감이 함께 증가하였으며($r = .13, p < .001$), 커뮤니티와의 연결감이 증가할수록 직장에서의 어려움이 함께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r = .11, p < .001$).

자살에 관한 변인의 분석 결과 총 560명(36.67%)의 응답자가 자살 사고를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100명(6.37%)의 응답자가 자살 시도를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청년 성소수자들의 커밍아웃 대상 및 수준에

따른 잠재프로파일의 분류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청년 성소수자들의 커밍아웃 양상에 따른 잠재프로파일의 유형을 확인하기 위해 3-step 방식의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2개에서 8개까지 순차적으로 증가시키며 정보지수와 Entropy, BLRT, LMR-RLT를 확인하였다. LPA의 결과는 표 3과 같다.

분석 결과 정보지수인 AIC, BIC, saBIC는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다. Entropy 지수는 잠재프로파일이 2개인 모형이 .98로 가장 높았으며, 7개인 모형이 .947로 가장 낮았으나, 모든 모형에서 .80 이상의 값을 가졌으므로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Wang & Wang, 2012). LMR-LRT와 BLRT 검증을 실시한 결과, BLRT 검증은 모든 분석

표 3. 각 잠재프로파일 분석의 모형 적합도 분석 결과

Profiles	AIC	BIC	saBIC	Entropy	LMR-LRT	BLRT
2	28775.48	28909.45	28830.03	.97	.03	< .001
3	25390.76	25572.96	25464.95	.98	.06	< .001
4	24036.96	24267.39	24130.79	.98	.06	< .001
5	23063.40	23342.00	23176.80	.97	.07	< .001
6	21349.73	21676.62	21482.84	.97	.06	< .001
7	21057.80	21432.92	21210.55	.95	.00	< .001
8	19004.77	19428.12	19177.15	.95	.01	< .001

에서 유의하였으며, LMR-LRT 검증은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3개, 4개, 6개인 분석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6개를 넘어감에 따라 표본의 5% 미만이 할당된 프로파일이 존재하였기에, 최종적으로 잠재 프로파일의 수가 5개인 모형을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5가지 잠재프로파일에 대해 실제로 표본이 소속될 확률인 사후 집단 소속 확률 결과는 표 4와 같다. Nagin(2005)에 따르면 사후 집단 소속 확률이 .70보다 높을 때 분류의 질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데, 본 연구에서 각 잠재 집단의 사후 집단 소속 확률

은 .95 ~ .99로 나타나, 분류의 질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국 청년 성소수자의 커밍아웃 양상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형태

한국에 거주하는 청년 성소수자의 커밍아웃 양상에 따른 5개 잠재프로파일 모형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5와 같으며, 표준 점수를 바탕으로 도식화한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1번 프로파일은 가장 많은 962명(61.28%)이 포함되며, 전체 프로파일 중 모든 대상에 대해 가장 낮은 수준의 커밍아웃을 특징으로 보

표 4. 각 잠재프로파일의 사후 집단 소속 확률

Profile	n(%)	1	2	3	4	5
1	962(61.28)	.99	.01	.02	0	0
2	188(11.98)	.01	.97	0	0	0
3	214(13.63)	.05	0	.95	0	0
4	..103(6.56)	0	0	0	.99	.01
5	..103(6.56)	0	0	.01	0	.99

Note. * $p < .05$, ** $p < .01$, *** $p < .001$.

Note. Profile 1 = 벽장형, Profile 2 = 어머니 공개형, Profile 3 = 가족 공개형, Profile 4 = 개방형, Profile 5 = 직장-전문가 공개형.

표 5. 잠재프로파일 지표변수들의 기술통계치

변인	Profile 1	Profile 2	Profile 3	Profile 4	Profile 5
	(n = 962)	(n = 188)	(n = 214)	(n = 103)	(n = 103)
	Z (S.E.)	Z (S.E.)	Z (S.E.)	Z (S.E.)	Z (S.E.)
어머니	-0.72 (0.01)	1.39 (0.01)	1.37 (0.02)	0.45 (0.11)	0.78 (0.10)
아버지	-0.47 (0.01)	-0.48 (0.02)	2.06 (0.02)	0.80 (0.14)	0.70 (0.15)
형제자매	-0.41 (0.03)	0.37 (0.08)	0.97 (0.06)	0.55 (0.11)	0.73 (0.10)
성소수자가 아닌 친구	-0.32 (0.03)	0.29 (0.07)	0.45 (0.07)	0.61 (0.09)	0.95 (0.10)
직장 동료	-0.32 (0.02)	-0.28 (0.04)	-0.15 (0.05)	1.00 (0.07)	2.79 (0.09)
직장 상사	-0.34 (0.01)	-0.34 (0.01)	-0.34 (0.01)	1.29 (0.01)	3.54 (0.08)
심리상담 전문가	-0.31 (0.03)	0.11 (0.10)	0.53 (0.09)	0.62 (0.14)	1.57 (0.11)
의료진 등 건강전문가	-0.29 (0.02)	0.05 (0.09)	0.55 (0.10)	0.63 (0.16)	1.32 (0.20)

Note. 변인의 값을 표준화 점수로 변환하여 제시함.

Note. Profile 1 = 벽장형, Profile 2 = 어머니 공개형, Profile 3 = 가족 공개형, Profile 4 = 개방형, Profile 5 = 직장-전문가 공개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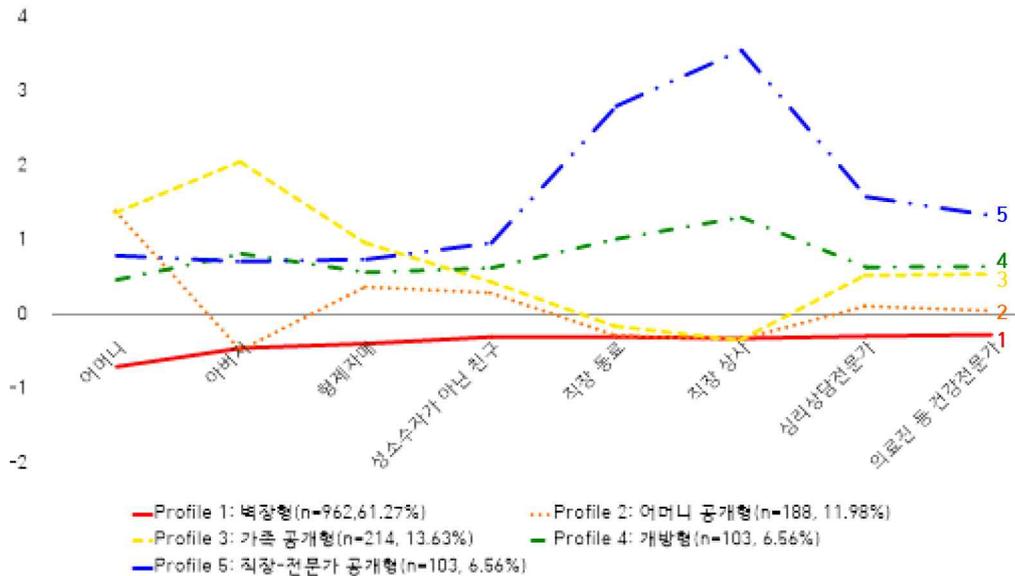


그림 1. 한국 청년 성소수자의 커밍아웃 양상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이는 프로파일로, '벽장형 프로파일'로 명명하였다. 2번 프로파일은 188명(11.98%)이 포함되며, 어머니에 대한 높은 커밍아웃 수준, 아버지에게 대해 낮은 커밍아웃 수준을 보이고, 그 외의 대상에 대해서는 평균에 근접한 커밍아웃 수준을 보이는 것이 특징적이기에, '어머니 공개형 프로파일'로 명명하였다. 3번 프로파일은 214명(13.63%)이 포함되며, 어머니와 아버지, 형제자매에 대한 높은 커밍아웃 수준을 보이기에 '가족 공개형 프로파일'로 명명하였다. 4번 프로파일은 103명(6.56%)이 포함되며, 모든 대상에 대해 중등도 수준으로 높은 커밍아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파일로, '개방형 프로파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5번 프로파일의 경우 103명(6.56%)이 포함되었으며, 모든 대상에 대해 중등도 이상의 높은 커밍아웃 수준을 보였으며, 특히 직장 동료, 직장 상사에 대한 매우 높은 수준의 커밍아웃, 심리상담

및 건강전문가에 대한 높은 수준의 커밍아웃 수준을 보였기에, '직장-전문가 공개형 프로파일'로 명명하였다. 특히 해당 프로파일은 주로 사무직으로 구성된 다른 프로파일과 달리, '기타, 비영리단체 등으로 응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은 프로파일이었다.

한국 청년 성소수자의 커밍아웃 양상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

각 잠재프로파일의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R3STEP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내면화된 동성애 혐오, 정체성 수용에 걸린 시간, 커뮤니티와의 연결감을 예측 변수로 설정하였고, 준거집단은 1번 프로파일(벽장형)로 설정하였다. R3STEP 방식은 승산비(Odds ratio)가 산출되지 않으나 각 변수에 대해 준거 집단에 비해 각 프로파일에 속할 확률을 분류

표 6. 한국 청년 성소수자의 커밍아웃 양상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구분 예측

	Profile 1 (준거집단)			
	Profile 2	Profile 3	Profile 4	Profile 5
	<i>Est</i> (<i>S.E.</i>)	<i>Est</i> (<i>S.E.</i>)	<i>Est</i> (<i>S.E.</i>)	<i>Est</i> (<i>S.E.</i>)
내면화된 동성애 혐오	-0.63** (0.20)	-0.93*** (0.25)	-0.68** (0.25)	-2.20*** (0.60)
정체성 수용에 걸린 시간	-0.01 (0.02)	0.02 (0.02)	0.03 (0.03)	-0.04 (0.03)
커뮤니티와의 연결감	0.38* (0.15)	0.60*** (0.14)	0.77*** (0.17)	1.37*** (0.20)

Note. * $p < .05$, ** $p < .01$, *** $p < .001$.

Note. R3STEP 방식은 Odds ratio가 산출되지 않음.

Note. Profile 1 = 벽장형, Profile 2 = 어머니 공개형, Profile 3 = 가족 공개형, Profile 4 = 개방형, Profile 5 = 직장-전문가 공개형.

오류를 고려한 채로 분석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진다.

첫째, 내면화된 동성애 혐오 수준이 높을수록 ‘벽장형’ 프로파일에 비해 다른 프로파일에 배정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Profile 2: $\beta = -.626, p < .01$; Profile 3: $\beta = -.926, p < .001$; Profile 4: $\beta = -.676, p < .01$; Profile 5: $\beta = -2.195, p < .001$). 특히 내면화된 동성애 혐오 수준이 낮을수록 ‘벽장형’ 프로파일에 비해 ‘직장-전문가 공개형’ 프로파일에 배정될 확률이 크게 높아졌다.

둘째, 정체성 수용에 걸린 시간은 모든 분석에서 잠재프로파일 구분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든 프로파일에서 정체성 수용에 걸린 시간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커뮤니티와의 연결감 수준이 높을수

록 ‘벽장형’ 프로파일에 비해 다른 프로파일에 배정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Profile 2: $\beta = .380, p < .05$; Profile 3: $\beta = .600, p < .001$; Profile 4: $\beta = .774, p < .001$; Profile 5: $\beta = 1.365, p < .001$). 특히 내면화된 동성애 혐오 수준과 유사하게, 커뮤니티와의 연결감 수준이 높을수록 ‘직장-전문가 공개형’ 프로파일에 배정될 확률이 크게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 청년 성소수자의 커밍아웃 양상에 따른 잠재 프로파일 간 종속 변수의 평균 차이 분석 결과

각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삶의 질, 주관적 행복, 주관적 건강 상태, 우울, 직장 내 어려움의 평균 차이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삶

표 7. 한국 성인의 커밍아웃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종속 변수의 평균 차이 분석

	Profile 1	Profile 2	Profile 3	Profile 4	Profile 5	χ^2	BCH
	<i>M</i> (<i>S.E.</i>)						
삶의 질	3.77 (0.05)	3.69 (0.11)	3.97 (0.10)	3.94 (0.14)	3.97 (0.15)	6.33	-
주관적 행복	6.20 (0.15)	6.00 (0.27)	6.08 (0.07)	5.92 (0.25)	6.56 (0.23)	5.04	5 > 1, 2, 3, 4
주관적 건강 상태	3.30 (0.06)	3.17 (0.12)	3.34 (0.03)	3.19 (0.11)	3.16 (0.12)	5.54	-
우울	2.00 (0.06)	2.06 (0.03)	2.03 (0.03)	2.09 (0.05)	2.15 (0.05)	13.10**	5 > 1, 2, 3, 4
직장 내 어려움	2.50 (0.07)	2.35 (0.13)	2.44 (0.03)	2.26 (0.11)	1.90 (0.14)	18.15***	1, 2, 3, 4 > 5

Note. * $p < .05$, ** $p < .01$, *** $p < .001$.

Note. Profile 1 = 벽장형, Profile 2 = 어머니 공개형, Profile 3 = 가족 공개형, Profile 4 = 개방형, Profile 5 = 직장-전문가 공개형.

의 질과 주관적 건강 상태의 경우 평균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외의 변수들에선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주관적 행복의 경우 '직장-전문가 공개형' 프로파일과 '가족 공개형' 프로파일에 비해 높다는 것 이외엔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우

울의 경우 '직장-전문가 공개형' 프로파일이 '벽장형' 프로파일과 '가족 공개형' 프로파일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살 사고와 자살 시도 변수의 경우 해당 경험의 유무를 묻는 이분 변수였기에 BCH 분석의 결과변수로 투입할

표 8. 한국 성인의 커밍아웃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자살 사고의 교차분석

		Profile 1 (%)	Profile 2 (%)	Profile 3 (%)	Profile 4 (%)	Profile 5 (%)	χ^2
자살 사고 있음	관측 빈도	294 (30.56)	76 (40.43)	89 (41.59)	52 (50.49)	49 (47.57)	32.66***
	기대 빈도	343.13	67.05	76.33	36.74	36.74	
자살 사고 없음	관측 빈도	668 (69.44)	112 (59.04)	125 (58.41)	51 (49.51)	53 (51.46)	
	기대 빈도	618.87	120.94	137.67	66.26	66.26	
계		962	118	214	103	103	1,570

Note. * $p < .05$, ** $p < .01$, *** $p < .001$.

Note. Profile 1 = 벽장형, Profile 2 = 어머니 공개형, Profile 3 = 가족 공개형, Profile 4 = 개방형, Profile 5 = 직장-전문가 공개형.

표 9. 한국 성인의 커밍아웃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자살 시도의 교차분석

		Profile 1 (%)	Profile 2 (%)	Profile 3 (%)	Profile 4 (%)	Profile 5 (%)	χ^2
자살 시도 있음	관측 빈도	38 (3.95)	13 (6.91)	21 (9.81)	14 (13.59)	14 (6.37)	31.81***
	기대 빈도	61.27	11.97	13.63	6.56	6.56	
자살 시도 없음	관측 빈도	924 (96.05)	175 (93.09)	193 (90.19)	89 (86.41)	89 (93.57)	
	기대 빈도	900.73	176.03	200.37	96.44	96.44	
계		962	118	214	103	103	1,570

Note. * $p < .05$, ** $p < .01$, *** $p < .001$.

Note. Profile 1 = 벽장형, Profile 2 = 어머니 공개형, Profile 3 = 가족 공개형, Profile 4 = 개방형, Profile 5 = 직장-전문가 공개형.

수 없었다. 따라서 잠재프로파일 집단에 따른 자살 사고와 자살 시도의 빈도를 계산하고, 집단 간 빈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교차분석 결과를 표 8과 표 9에 제시하였다. 지난 1년간 자살 사고의 빈도가 가장 높았던 잠재프로파일 집단은 ‘개방형’ 프로파일(50.49%)이었으며, 이후 ‘직장-전문가 공개형’ 프로파일(47.57%), ‘가족 공개형’ 프로파일(41.59%) 순서였다. 교차분석 결과 잠재프로파일 집단 간 자살사고의 빈도 차이가 유의하였다.

또한 지난 1년간 자살 시도 유무의 빈도가 가장 높았던 잠재프로파일 역시 ‘개방형’ 프로파일(13.59%)였으며, 이후 ‘가족 공개형’ 프로파일(9.81%) 순서였다. 지난 1년간 자살 시도 유무 또한 잠재프로파일 집단 간의 빈도 차이가 유의하였으며, 본 연구 결과에 따라 도출된 프로파일 간 자살 사고와 자살 시도 경험의 빈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 청년 성소수자(LGBTQ+)의 커밍아웃 대상 및 수준에 대하여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내면화된 동성애 혐오, 정체성 수용에 걸린 시간 및 커뮤니티와의 연결감이 잠재프로파일의 구분을 예측하는지, 구분된 잠재프로파일에 따라 삶의 질, 주관적 행복, 주관적 건강 상태, 우울 및 직장 내 어려움에 대한 BCH 방식의 평균 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커밍아웃 대상 및 수준은 어머니, 아버지 및 형제자매에 대하여 3점 Likert 척도로, 성소수자가 아닌 친구,

직장 동료, 직장 상사, 심리상담전문가 및 의료진 등 건강전문가에 대하여 4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었다. 분석 결과 한국 청년 성소수자의 커밍아웃 대상 및 수준에 따른 5개의 잠재프로파일이 식별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및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는 청년 성소수자를 커밍아웃 8개의 대상(어머니, 아버지, 형제자매, 성소수자가 아닌 친구, 직장 동료, 직장 상사, 심리상담전문가, 의료진 등 건강전문가) 및 정체성 공개의 수준에 따라 5가지 잠재 계층을 구분하였다. 구분된 잠재 계층엔 각각의 프로파일에 따라 ‘어머니 공개형’, ‘벽장형’, ‘가족 공개형’, ‘개방형’, ‘직장-전문가 공개형’으로 명명하였다.

구분된 잠재프로파일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어머니 공개형’ 프로파일은 ‘벽장형’ 프로파일에 비해 내면화된 동성애 혐오가 낮고 커뮤니티와의 연결감이 높은 표본이 배정될 확률이 높았다. 해당 프로파일은 ‘직장-전문가 공개형’ 프로파일에 비해 주관적 행복과 우울감이 낮은 11.98%의 표본이 포함되었다. ‘벽장형’ 프로파일은 다른 프로파일에 비해 높은 내면화된 동성애 혐오 수준과 낮은 LGBT 커뮤니티와의 연결감을 보인 표본이 배정될 확률이 높았으며, 낮은 주관적 행복, 우울 및 높은 직장 내 어려움 수준을 보이는 61.27%의 성소수자가 포함되었다. ‘가족 공개형’ 프로파일은 ‘벽장형’ 프로파일에 비해 내면화된 동성애 혐오 수준이 낮고, LGBT 커뮤니티와의 연결감이 높은 표본이 배정될 확률이 높았던 13.63%의 성소수자가 포함되었다. ‘개방형’ 프로파일은 ‘벽장형’ 프로파일에 비해 내면화된 동성애 혐오 수준이 낮고, LGBT 커뮤니티와의 연결감이 높은 표본이 배정될

확률이 높았으며, 낮은 주관적 행복, 우울 및 상대적으로 높은 자살 사고 및 시도 수준을 보인 6.56%의 성소수자가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직장-전문가 공개형’ 프로파일은 내면화된 동성애 혐오가 가장 낮고, 커뮤니티와의 연결감 수준이 가장 높은 표본이 배정될 확률이 높았으며, 가장 높은 주관적 행복과 가장 낮은 직장 내 어려움을 보였지만, 우울 또한 가장 높은 6.56%의 성소수자가 포함되었다.

둘째, 본 연구 결과 내면화된 동성애 혐오 정도와 커뮤니티와의 연결감은 잠재프로파일의 구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모든 잠재프로파일에서 내면화된 동성애 혐오 정도가 높고, 커뮤니티와의 연결감이 낮을수록 ‘벽장형’ 프로파일에 배정될 확률이 증가했으며, 이는 커밍아웃이 가시성을 높여 사회적지지를 습득할 수 있는 커뮤니티와의 연결감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내면화된 동성애 혐오가 커밍아웃 수준을 감소시킨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Berzon, 2001; Cox et al., 2010; Mayfield, 2001; Pachankis et al., 2020; Pachankis & Jackson, 2023; Solomon et al., 2015; Szymanski & Chung, 2001; ; Szymanski, D. M. et al., 2008).

셋째, 본 연구에서 구분된 잠재프로파일에 따라 주관적 행복, 우울 및 직장 내 어려움 등 정신건강 관련 변수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개방형’ 프로파일의 경우 직장 내 어려움 수준이 가장 높고, 주관적 행복과 우울의 수준이 가장 낮았다. 또한 프로파일의 50.49%가 지난 1년간 자살 사고가 있다고 보고했으며, 13.59%가 지난 1년간 자살을 시도해 본 적 있다고 답했다. ‘직장-전문가 공개형’ 프로파일의 경우 우울 수준이 가장 높았으나, 주관적 행복이 가장 높으며, 직

장 내 어려움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벽장형’ 프로파일의 경우 우울 수준이 낮았고, 지난 1년간 자살 사고는 30.56%였다. 또한 직장 내 어려움 수준이 높았고, 주관적 행복이 낮았으며, 상대적으로 자살 사고 및 시도의 비율이 낮았다. 주관적 행복이 낮으며, 직장 내 어려움이 높았다. ‘어머니 공개형’ 프로파일은 낮은 우울과 주관적 행복, 높은 직장 내 어려움 수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직장-전문가 공개형’ 프로파일은 도출된 5개의 잠재프로파일 중 가장 직장 내 어려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성소수자와 직장 내 기능의 부적 관계를 보고한 선행 연구들과 상반되는 결과를 보인다(장서연 등, 2014; 정성조 등, 2022; Landes et al., 2023; Winderman et al., 2018). 해당 프로파일에 속한 표본의 수가 적기에 해석이 제한적일 수 있으나, 가시성 관리의 맥락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공개해도 안전한 직장 환경에 속한 성소수자들이 해당 프로파일에 속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해당 프로파일은 잠재프로파일 중 가장 높은 주관적 행복을 보고했으며, 이는 직장에서의 커밍아웃이 높은 직무 만족도 및 낮은 불안과 관련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일부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Griffith & Hebi, 2002).

이상의 본 연구 결과에 대한 학문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로 구분된 성소수자의 커밍아웃 대상별 LPA 결과는 성소수자의 커밍아웃 양상에 대한 정성조와 이희영(2023)과 Caba 등(2022)의 결과를 일부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Caba 등(2022)은 잠재집단 분석을 사용하여 청소년 성소수자의 커밍아웃 패턴이 ‘교사를 제외한 모두’, ‘형제자매와 친

구', '형제자매와 성소수자 친구', '성소수자 친구', '대부분 하지 않음', '전혀 하지 않음'의 여섯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본 연구와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한 정성조와 이희영(2023)은 성소수자들의 커밍아웃과 상황별 정체성 정보 관리 인식에 대한 잠재집단분석을 통해 상대적으로 커밍아웃을 꺼리지 않는 '개방형 벽장', 커밍아웃 수준은 낮지만 정체성을 공개하는 것에 거부감을 덜 느끼는 '은둔형 벽장', 커밍아웃 수준이 낮으면서 정체성을 공개하는 것에 거부감을 크게 느끼는 '억압형 벽장'의 세 가지 잠재 집단을 구분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가장 많은 참여자가 속한 '벽장형' 프로파일은 정성조와 이희영(2023)의 '은둔형 벽장' 프로파일과 마찬가지로 낮은 커뮤니티와의 연결감을 특징으로 했으며, Caba 등(2022)의 '대부분 하지 않음' 프로파일과 유사한 커밍아웃 수준을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도출된 '직장-전문가 공개형' 프로파일은 가족과 친구에겐 상대적으로 커밍아웃하지 않지만, 직장내 전문가에게 높은 수준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공개한 프로파일로 선행 연구에서 보이지 않았던 유형의 프로파일이었다. 해당 프로파일은 가장 높은 커뮤니티와의 연결감과 함께 가장 낮은 직장 내 어려움 수준을 보였으며, 프로파일에 속한 28.4%의 표본이 직장으로 '기타(비영리 단체 등)'에 응답했다. 이는 프로파일 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었으며, 다른 프로파일에 비해 높은 수치였다. 즉, 해당 프로파일에 속한 참여자 대다수가 상대적으로 소수자에 친화적일 가능성이 높은 인권 단체 등의 상임활동가로 속해있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해당 데이터에서 이를 구분하지 않았기에 추가적인 분석은 어려웠다. 직장 내에서의 정체성 공개

수준은 인식된 차별의 수준,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Lewis & Sheehan, 2003; Madera et al., 2012), 성소수자가 직장 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공개할 때 직업의 종류와 직장 환경의 분위기 등이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김지선 등, 2024). 향후 연구에서는 직업의 종류 및 직장 내 분위기가 커밍아웃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 설계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학문적 함의의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 구분된 잠재프로파일인 '벽장형' 프로파일은 가장 높은 내면화된 동성에 혐오, 직장 내 어려움과 더불어 가장 낮은 커뮤니티와의 연결감, 우울감 및 주관적 행복을 보이는 프로파일이었다. 한국 사람의 30~40%가 성소수자에게 적대적인 감정이 있기에(한국리서치, 2025), 정체성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정적인 스트레스 사건으로부터 성소수자 개인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낮은 우울 수준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정체성 공개와 소수자 스트레스에 관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정체성을 은폐하는 것은 또 다른 스트레스 요인이며(Feinstein, 2020; Grov et al., 2006; Meyer, 2003), 낮은 수준의 커밍아웃은 커뮤니티와 연결되는 것을 저해할 수 있으며, 사회적지지를 충분히 획득하지 못한 성소수자들은 소수자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곤란할 수 있다(Craney et al., 2018). 현재 낮은 수준의 우울감을 보고했다 하더라도, 해당 프로파일의 높은 수준의 내면화된 동성에 혐오, 낮은 수준의 주관적 행복과 커밍아웃 양상이 가지는 관계가 정신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임을 시사한다.

학문적 함의의 세 번째로, 본 연구에서 도

출된 '개방형' 프로파일과 '직장-전문가 공개형' 프로파일은 커밍아웃과 스트레스 관련 성장(stress-related growth)의 관계를 지적인 선행연구의 결과를 일부 지지할 수 있다(McCurdy et al., 2023; Solomon et al., 2015). 커밍아웃은 인생의 큰 변화와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과정으로 설명되며, 선행연구에서는 커밍아웃이 삶의 질, 행복과 같은 긍정적인 영역과 함께 단기적인 스트레스를 동반할 수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APA, 2011; Boatwright et al., 1996; McCann, 2012).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자살 시도 및 사고와 낮은 우울 수준을 보이는 '개방형' 프로파일과, 높은 우울 수준을 보이면서 동시에 높은 주관적 행복을 보이는 '직장-전문가 공개형' 프로파일을 설명할 수 있다. 다만 커밍아웃을 통한 정체성의 발달과 사회적 지지 자원의 습득은 장기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Drescher, 2008), 향후 연구에서는 커밍아웃의 영향을 더 장기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학문적 함의의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커밍아웃의 양상은 성소수자 개인과 맞닿은 사회 구조와 상황적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김지선 등, 2024; Legate et al., 2012), 이는 가시성 관리(visibility management; Lasser et al., 2010)와 Chaudoir와 Fisher(2010)의 공개 과정 모델(disclosure processes model; DPM)의 맥락 하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가시성 관리는 자신의 정체성이 노출되는 정도를 조절하는 성소수자의 행위로서, 옷을 입는 방식 등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은밀히 노출해 환경의 안전함을 평가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성소수자는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사회적 환경에서 선택적으로 커밍아웃하게 되며, 이렇게 환경에 대해 통제감을 형성하

여 더 나은 정신건강과 관련된다고 알려졌다 (Dewaele et al., 2013). 또한 성적 지향과 같이 은폐할 수 있는 낙인찍힌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공개하는 의사결정에 관한 모델인 공개 과정 모델에선 자신의 정체성을 공개하려는 접근 중심 목표(approach-focused goal)와 공개하지 않으려는 회피 중심 목표(avoidance-focused goal)가 이전의 정체성이 공개된 사건의 맥락, 과정(배적, 사회적지지 등), 공개의 결과에 따라 조절되어 다음 정체성 공개 사건에서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에 기반하면, 성소수자의 커밍아웃은 개인의 성격적 특성, 대상과의 거리, 사회적 구조와 상황적 조건, 이전의 커밍아웃 사건의 맥락 및 결과에 따라 고정되지 않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정체성 발달 과정의 일환이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성소수자의 정체성 공개 사건에서 가시성 관리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그 효과는 어떠한지에 대한 질적 연구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성소수자의 정체성 공개와 정신건강의 관계를 더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임상적 함의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국외의 문헌에서는 성소수자에게 안전한 커밍아웃을 지원하는 인지행동치료적 접근과 가족중심치료의 효과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Grafsky & Gary, 2018; Willoughby & Doty, 2010), 이러한 치료적 접근이 아직 실험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거나 유의한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벽장형' 프로파일은 주관적 행복감은 낮았으나 우울감 역시 낮게 나타난 결과는 단순히 높은 수준의 정체

성 공개 자체가 아니라, 안전한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커밍아웃과 이에 대한 수용 경험이 성소수자의 심리적 적응에 더 핵심적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며, 이는 가시성 관리의 맥락과 일치한다.

따라서 국내 청년 성소수자의 정체성 공개와 관련하여 치료적 개입을 시도할 때, 임상가는 성소수자들이 안전하고 지지적인 환경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공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나아가 LaSala(2000)는 자녀의 커밍아웃 과정에서 부모가 경험하는 비통함(grief)을 다룰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커밍아웃 관련 개입 시 임상가가 성소수자 당사자의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부모 및 가족 구성원에게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시사한다(김진이, 2017). 구체적으로는 성소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교육을 제공하여 차별적인 신념을 감소시키고, 가족 간 의사소통 방식을 개선하는 등의 적극적인 중재가 포함될 수 있다.

임상적 함의의 두 번째로, 성소수자 커뮤니티와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것이 청년 성소수자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Dolence et al., 2025; Lefevor et al., 2024). 커뮤니티와의 연결성은 특정 특성, 경험 또는 역사를 공유하는 집단과 개인이 맺고 있는 실제적이고 인식된 연관성을 말하며(Frost & Meyer, 2012), 성소수자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증거가 보고되었다(Craney et al., 2018; Mahon et al., 2021; Salfas et al., 2019). 본 연구에서 또한 가장 높은 커뮤니티와의 연결성을 보였던 ‘직장-전문가 공개형’ 프로파일이 가장 높은 주관적 행복을 보였으며, 이는 커뮤니티와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국내 성소수자의 주

관적 행복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이미 국내의 많은 성소수자 단체(예: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명동 등)에서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있으며, 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직접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다. 성소수자 내담자에 대한 개입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의 임상가는 내담자를 이러한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며,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이 주는 치료적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개입의 실제 효용성에 대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공개하고 소속감을 경험할 수 있는 성소수자 커뮤니티 구축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커뮤니티와의 연결감은 내면화된 동성애 혐오와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으며, 삶의 질과 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선행 연구에서도 성소수자의 커뮤니티와의 연결감, 참여와 정신건강 간의 정적인 관계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지만(Craney et al., 2018; Dolence et al., 2025; Mahon et al., 2021; Salfas et al., 2019), 성소수자 커뮤니티 구축을 위한 국내의 정책적 차원의 지원은 전무하며, 또한 대부분의 커뮤니티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안전한 커뮤니티를 구축,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동반된다면 수도권 외 지역의 성소수자에게도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증가할 것이다.

둘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 결과 사회의 차별과 혐오를 내면화한

정도인 내면화된 동성애 혐오 수준은 커뮤니티와의 연결감, 삶의 질과 유의한 부적 관계를 가졌으며, 우울 및 불안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가졌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분석한 <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 조사> 자료에서도 참여자의 33.6%가 지난 1년간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하였고 26.8%가 직장에서 심각한 차별을 경험하였다는 보고에도 불구하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성소수자의 부정적인 정신건강은 사회적으로 부과된 낙인과 스트레스의 결과이기(Meyer, 2003), 이를 방지하고 구제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학문적, 임상적, 정책적 함의에 대한 고려 사항으로, 커밍아웃의 대상과 그 수준은 개인의 특성이 아닌 개인이 속한 환경적 맥락과 이전의 공개 경험, 공개의 긍정적, 부정적 결과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요인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커밍아웃의 대상과 수준에 따른 정신건강 관련 변수들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이는 단순 커밍아웃의 수준이 아닌 환경적 맥락 또한 강조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성소수자에 대한 심리치료적 개입이나 정책을 시행할 때 단순히 커밍아웃의 수준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개인이 속한 환경적 맥락과 과거의 공개 경험 등 개인을 둘러싼 사회환경적 요인의 관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2022)에서 제공한 대규모 표본을 통해 성소수자의 커밍아웃 양상에 따라 정신건강 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제안하였으나, 이는 횡단적 자료이기

에 변수 간의 인과를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성소수자의 커밍아웃 양상과 정신건강의 인과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 혹은 전향적 설계의 중단 연구를 설계할 필요성을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변수 중 자살 사고와 자살 시도는 최근 1년간 한 번이라도 이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측정한 이분 변수였기에 LPA의 결과변수로 투입할 수 없어 잠재프로파일 집단에 따른 빈도별 교차분석만을 실시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자살 관련 변수를 모형에 투입하고, 신뢰롭고 타당한 측정을 도모하기 위해 Beck 자살사고척도(Beck et al., 1979) 등의 척도를 통해 자살 사고 혹은 위험성을 양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4번 프로파일인 '개방형' 프로파일과, 5번 프로파일인 '직장-전문가 공개형' 프로파일의 경우, 전체 표본의 6.56%만이 속한 작은 프로파일이었다. 따라서 해당 프로파일에서의 결과를 일반화 가능성을 제안할 수 있다. 그러나, LPA의 해석을 위한 잠재프로파일의 최소 크기는 표본의 5%이기(Spurk et al, 2020), 분석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크게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해석에 포함하였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각 프로파일의 특성에 맞는 성소수자를 개별적으로 표집하여, 본 연구에서의 결과가 재현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 제안한다. 또한, '직장-전문가 공개형' 프로파일의 경우 '기타, 비영리단체 등의 종사자가 다수 포함된 잠재프로파일로서, 일반적인 직장에 재직 중인 대부분의 성소수자에게 포괄적으로 일반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 문항들은 다양한 실태 조사와 보고서에서 사용되었던

척도들이었으며, 내적 일치도가 보고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또한 제공받은 원자료를 토대로 해당 조사에서의 내적 일치도를 보고할 수 있었으나, 척도의 개발 당시의 내적 일치도를 보고할 수 없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심리측정적으로 검증된 척도를 사용하여 분석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LPA에 필요한 표본 수는 300명에서 1,000명으로 제안되나(Spurk et al., 2020),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의 수는 1,570명으로 표본이 과표집되었을 가능성이 있기에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과표집(oversampling)은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올릴 수 있으며 목표하는 표본이 일반 모집단과 차이가 있을 경우 권장되는 방식이기도 하나, 통계 분석 시 결과 추정치를 과대 추정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Hauner et al., 2014). 본 연구의 통계적 분석 결과가 과표집으로 인해 편향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이후 새롭게 표집된 다양한 크기의 표본을 통해 결과의 재현 가능성을 확인해 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국에서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던 커밍아웃 수준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대규모 표본으로 분석했다는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한국 청년 성소수자의 커밍아웃 사건이 정신건강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고,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는 커밍아웃 사건이 스트레스 관련 성장과 관련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국내 성소수자의 정신건강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병철, 하경희 (2006). 청소년 동성애자의 반동성에 폭력경험과 심리사회적 특성. *아동과 권리*, 10(3), 425-440.
- 국가인권위원회 (2014).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 권재기 (2014). 초등학교의 집단따돌림 역할자 분석: 잠재프로파일 탐색, 특성예측 및 종단적 변화양상 분석.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45, 191-227.
- 김승섭, 이호립, 이해민, 박주영, 최보경 (2016). 2016 한국 성인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건강 연구: 자살과 관련한 정신건강을 중심으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기초조사 보고서*.
- 김지선, 윤희정, 배일현, 신윤정 (2024). 직장 내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미묘한 차별 측정 척도 타당화 연구. *다문화교육연구*, 17(2), 57-90.
- 김진이 (2017). 가족의 거부로 인한 성소수자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합의적 질적 연구(CQR).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3(4), 605-634.
- 이소연 (2025). 2025 성소수자 인식조사: 성소수자에 대한 나와 우리 사회의 포용 수준. *한국리서치*.
- 이현정, 유금란 (2024).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이 성소수자(LGB)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반추의 매개효과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성정체성 수용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30(3), 379-406.
- 정성조, 김보미, 심기용, 한성진 (2022). 2021

-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음.
- 정성조, 이희영 (2023). 개방형, 은둔형, 억압형 벽장: 청년 성소수자의 커밍아웃 양상에 관한 잠재집단분석. *한국사회학*, 57(4), 49-93.
- 정세정, 김태완, 김문길, 정해식, 김기태, 주유선, 강예은, 최준영, 송아영, 김용환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명한, 차경호 (1998). *삶의 질에 대한 국가간 비교*. 서울: 집문당.
- 최 율, 이왕원 (2015). 청년층 취업선호도와 노동시장 진입의 관계: 잠재집단분석과 생존분석을 통한 접근: 잠재집단분석과 생존분석을 통한 접근. *한국사회학*, 49(5), 1-44.
- 최현정 (2020). 성소수자 혐오폭력 경험에 관한 포커스 그룹 질적 분석: 악셀 호네프의 인정투쟁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9(3), 385-420.
- 홍세희 (2019). *잠재계층, 잠재전이, 성장혼합 모형*. 서울: 박영사.
- Alonzo, D. J., & Buttitta, D. J. (2019). Is "Coming out" Still Relevant? Social Justice Implications for LGB Membered Families. *Journal of Family Theory & Review*, 11(3), 354-366.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1). *Definition of Terms: Sex, Gender, Gender Identity, Sexual Orientation*. https://www.nawj.org/uploads/pdf/conferences/2014/CLE/definition_of_terms_american_psychological_association.pdf.
- Asparouhov, T., & Muthén, B. (2014). Auxiliary variables in mixture modeling: Using the BCH method in Mplus to estimate a distal outcome model and an arbitrary secondary model. *Mplus web notes*, 21(2), 1-22.
- Beck, A. T., Kovacs, M., & Weissman, A. (1979). Assessment of suicidal intention: the scale for suicide ide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2), 343.
- Berzon, B. (2001). *Developing a positive gay and lesbian identity. Positively gay: New approaches to gay and lesbian life*(pp. 18-31). Celestial Arts.
- Boatwright, K. J., Gilbert, M. S., Forrest, L., & Ketzenberger, K. (1996). Impact of identity development upon career trajectory: Listening to the voices of lesbian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8(2), 210-228.
- Bonet, L., Wells, B. E., & Parsons, J. T. (2007). A positive look at a difficult time: A strength based examination of coming out for lesbian and bisexual women. *Journal of LGBT Health Research*, 3(1), 7-14.
- Bostwick, W. B., Boyd, C. J., Hughes, T. L., West, B. T., & McCabe, S. E. (2014). Discrimination and mental health among lesbian, gay, and bisexual adults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84(1), 35.
- Caba, A. E., Mallory, A. B., Simon, K. A., Rathus, T., & Watson, R. J. (2022). Complex outness patterns among sexual minority youth: A latent class analysi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51(4), 746-765.
- Cass, V. C. (1984). Homosexual identity: A concept in need of definition. *Journal of*

- Homosexuality*, 9(2-3), 105-126.
- Chaudoir, S. R., & Fisher, J. D. (2010). The disclosure processes model: understanding disclosure decision making and postdisclosure outcomes among people living with a concealable stigmatized identity. *Psychological Bulletin*, 136(2), 236.
- Cox, D., Frere, M., West, S., & Wiseman, J. (2010). Developing and using local community wellbeing indicators: Learning from the experience of Community Indicators Victoria. *Australian Journal of Social Issues*, 45(1), 71-88.
- Craney, R. S., Watson, L. B., Brownfield, J., & Flores, M. J. (2018). Bisexual women's discriminatory experiences and psychological distress: Exploring the roles of coping and LGBTQ community connectedness. *Psychology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Diversity*, 3(3), 324.
- Dewaele, A., Van Houtte, M., Cox, N., & Vincke, J. (2013). From coming out to visibility management—A new perspective on coping with minority stressors in LGB youth in Flanders. *Journal of Homosexuality*, 60(5), 685-710.
- Diener, E. D.,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 Dolence, X. A., Hermann, B. A., Mullins, I. I., & Blagov, P. S. (2025). Does LGBTQ+ Community Connectedness Buffer Discrimination's Indirect Effect on Generalized Anxiety Through Rejections Sensitivity in LGBTQ+ U.S. Adults? *Journal of Homosexuality*, 1-25.
- Drescher, J. (2008). A history of homosexuality and organized psychoanalysi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Psychoanalysis & Dynamic Psychiatry*, 36(3), 443-460.
-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2020). *A Long Way to Go for LGBTI Equality*. https://fra.europa.eu/sites/default/files/fra_uploads/fra-2020-lgbti-equality-1_en.pdf.
- Feinstein, B. A. (2020). The rejection sensitivity model as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sexual minority mental health. *Archives of Sexual Behavior*, 49(7), 2247-2258.
- Frost, D. M., & Meyer, I. H. (2012). Measuring community connectedness among diverse sexual minority populations. *Journal of Sex Research*, 49(1), 36-49.
- Goldbach, J. T., & Gibbs, J. J. (2017). A developmentally informed adaptation of minority stress for sexual minority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55, 36-50.
- Grafsky, E. L., & Gary, E. A. (2018). What sexual minority youths want in a program to assist with disclosure to their family. *Journal of gay & lesbian social services*, 30(2), 172-191.
- Griffith, K. H. & Hebi, M. R. (2002). The disclosure dilemma for gay men and lesbians: "Coming out" at work.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7(6), 1191-1199.
- Grov, C., Bimbi, D. S., Nanin, J. E., & Parsons, J. T. (2006). Race, ethnicity, gender, and generational factors associated with the coming out process among gay, lesbian, and bisexual individuals. *Journal of Sex Research*, 43(2),

- 115-121.
- Hanna-Walker, V., Caba, A. E., Simon, K. A., Renley, B. M., Lefkowitz, E. S., & Watson, R. J. (2024). Identity outness to family among gender diverse sexual minority youth: A latent profile analysis. *Psychology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Diversity*.
- Harrison, T. W. (2003). Adolescent homosexuality and concerns regarding disclosure. *Journal of School Health, 73*(3), 107-112.
- Hatzenbuehler, M. L., Nolen-Hoeksema, S., & Erickson, S. J. (2008). Minority stress predictors of HIV risk behavior, substance use, and depressive symptoms: results from a prospective study of bereaved gay men. *Health Psychology, 27*(4), 455.
- Hauner, K. K., Zinbarg, R. E., & Revelle, W. (2014). A latent variable model approach to estimating systematic bias in the oversampling method. *Behavior Research Methods, 46*(3), 786-797.
- Hill, N. L. (2009). Affirmative practice and alternative sexual orientations: Helping clients navigate the coming out process. *Clinical Social Work Journal, 37*(4), 346-356.
- Hill, K. G., White, H. R., Chung, I. J., Hawkins, J. D., & Catalano, R. F. (2000). Early adult outcomes of adolescent binge drinking: person and variable centered analyses of binge drinking trajectories.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24*(6), 892-901.
- Javaid, A. (2025). Finding him: a symbolic interactionist perspective of romantic and queer love. *International Review of Sociology, 35*(1), 137-156.
- Jordan, K. M., & Deluty, R. H. (1998). Coming out for lesbian women: Its relation to anxiety, positive affectivity,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Homosexuality, 35*(2), 41-63.
- Kieken, W. J., Baams, L., Feinstein, B. A., & Veenstra, R. (202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exual minority adolescent rejection sensitivity scale. *Archives of Sexual Behavior, 52*(3), 971-989.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Guilford publications.
- Knoble, N. B., & Linville, D. (2012). Outness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in same gender couple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38*(2), 330-339.
- Kosciw J. G., Palmer N. A., & Kull R. M. (2015). Reflecting resiliency: Openness about sexual orientation and/or gender identity and its relationship to well-being and educational outcomes for LGBT student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55*(1), 167-178.
- Landes, S. J., Jaffe, A. E., McBain, S. A., Feinstein, B. A., Rhew, I. C., & Kaysen, D. L. (2023). Prospective predictors of work limitations in young adult lesbian and bisexual women: An examination of minority stress, trauma exposure, and mental health. *Stigma and Health, 8*(2), 232.
- LaSala, M. C. (2000). Lesbians, gay men, and their parents: Family therapy for the coming-out crisis. *Family process, 39*(1), 67-81.
- Lasser, J., Ryser, G. R., & Price, L. R. (2010). Development of a lesbian, gay, bisexual visibility management scale. *Journal of Homosexuality, 57*(3), 415-428.

- Lefevor, G. T., Sorrell, S. A., Skidmore, S. J., Huynh, K. D., Golightly, R. M., Standifird, E., Searle, K., & Call, M. (2024). When connecting with LGBTQ+ communities helps and why it does: A meta-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onnectedness and health-related outcomes. *Psychological Bulletin, 150*(11), 1261-1286.
- Legate, N., Ryan, R. M., & Weinstein, N. (2012). Is coming out always a “good thing”? Exploring the relations of autonomy support, outness, and wellness for lesbian, gay, and bisexual individuals.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3*(2), 145-152.
- Lewis, D., & Sheehan, M. (2003). Workplace bullying: Theoretical and practical approaches to a management challenge.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and Decision Making, 4*(1), 1-10.
- Lin, T. H., & Dayton, C. M. (1997). Model selection information criteria for non-nested latent class models. *Journal of Educational and Behavioral Statistics, 22*(3), 249-264.
- Madera, J. M., King, E. B., & Hebl, M. R. (2012). Bringing social identity to work: the influence of manifestation and suppression on perceived discrimination,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8*(2), 165.
- Mayfield, W. (2001). The development of an internalized homonegativity inventory for gay men. *Journal of Homosexuality, 41*(2), 53-76.
- Mahon, C. P., Pachankis, J. E., Kiernan, G., & Gallagher, P. (2021).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social anxiety among sexual minority individual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50*(3), 1015-1032.
- McCann, D. (2012). *What does violence tell us about gay male couple relationship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East London]. Tavistock and Portman.
- McCurdy, A. L., Lavner, J. A., & Russell, S. T. (2023). A latent profile analysis of perceived family reactions to youth LGBTQ identity.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37*(6), 888.
- Meyer, Ilan H., Lindsay Rossano, James M. Ellis, and Judith Bradford. (2002). A Brief Telephone Interview to Identify Lesbian and Bisexual Women in Random Digit Dialing Sampling. *Journal of Sex Research, 39*(2), 139-144.
- Meyer, I. H. (2003). Prejudice, social stress, and mental health in lesbian, gay, and bisexual populations: conceptual issues and research evidence. *Psychological Bulletin, 129*(5), 674.
- Meyer, I. H. & Choi, S. K. (2020). *Differences Between LGB Democrats and Republicans in Identity and Community Connectedness*. Williams Institute.
- Morris, J. F., Waldo, C. R., & Rothblum, E. D. (2001). A model of predictors and outcomes of outness among lesbian and bisexual women.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1*(1), 61-71.
- Muthén, L. K., & Muthén, B. (2007). *Multilevel modeling with latent variables using Mplus*. Unpublished manuscript.
https://stats.oarc.ucla.edu/wp-content/uploads/2016/02/day5a_part1.pdf.
- Muthén, B. (2004). Latent variable analysis. *The*

- Sage handbook of quantitative methodology for the social sciences*, 345(368), 106-109.
- Nagin, D. S. (2005). *Group-based modeling of develop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 Newcomb, M. E., & Mustanski, B. (2010). Internalized homophobia and internalizing mental health problems: A meta-analytic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30(8), 1019-1029.
- No, U., & Hong, S. (2018). A Comparison of Mixture Modeling Approaches in Latent Class Models With External Variables Under Small Sample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78(6), 925-951.
- Pachankis, J. E., & Jackson, S. D. (2023). A developmental model of the sexual minority closet: Structural sensitization, psychological adaptations, and post-closet growth. *Archives of Sexual Behavior*, 52(5), 1869-1895.
- Pachankis, J. E., Mahon, C. P., Jackson, S. D., Fetzner, B. K., & Branstrom, R. (2020). Sexual orientation concealment and mental health: A conceptual and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46(10), 831-871.
- Pastor, D. A., Barron, K. E., Miller, B. J., & Davis, S. L. (2007). A latent profile analysis of college students'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32(1), 8-47.
- Riggle, E. D., Rostosky, S. S., Black, W. W., & Rosenkrantz, D. E. (2017). Outness, concealment, and authenticity: Associations with LGB individuals' psychological distress and well-being. *Psychology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Diversity*, 4(1), 54.
- Ryan, W. S., Legate, N., & Weinstein, N. (2015). Coming out as lesbian, gay, or bisexual: The lasting impact of initial disclosure experiences. *Self and Identity*, 14(5), 549-569.
- Salfas, B., Rendina, H. J., & Parsons, J. T. (2019). What is the role of the community? Examining minority stress processes among gay and bisexual men. *Stigma and Health*, 4(3), 300-309.
- Savickas, M. L. (2005). The theory and practice of career construction.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1(1), 42-70.
- Solomon, D., McAbee, J., Asberg, K., & McGee, A. (2015). Coming out and the potential for growth in sexual minorities: The role of social reactions and internalized homonegativity. *Journal of Homosexuality*, 62(11), 1512-1538.
- Spurk, D., Hirschi, A., Wang, M., Valero, D., & Kauffeld, S. (2020). Latent profile analysis: A review and "how to" guide of its application within vocational behavior resear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20, 103445.
- Szymanski, D. M., & Chung, Y. B. (2001). The lesbian internalized homophobia scale: A rational/theoretical approach. *Journal of Homosexuality*, 41(2), 37-52.
- Szymanski, D. M., Kashubeck-West, S., & Meyer, J. (2008). Internalized heterosexism — Measurement, psychosocial correlates, and research directions. *Counseling Psychologist*, 36(4), 525-574.
- Tasker, F., Barrett, H., & De Simone, F. (2010). 'Coming Out Tales': adult sons and daughters' feelings about their gay father's

- sexual identity.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Family Therapy*, 31(4), 326-337.
- Wainipitapong, S., Wiwattarangkul, T., Kneale, D., & Bécares, L. (2025). LGBTQ+ Identity Disclosure and Mental Health Outcomes: A Systematic Review of Qualitative and Longitudinal Quantitative Studies. *Journal of Homosexuality*, 1-48.
- Willoughby, B. L., & Doty, N. D. (2010). Brief cognitive behavioral family therapy following a child's coming out: A case report. *Cognitive and Behavioral Practice*, 17(1), 37-44.
- Winderman, K., Martin, C. E., & Smith, N. G. (2018). Career indecision among LGB college students: The role of minority stress,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community affiliation.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45(6), 536-550.

논문 투고일 : 2025. 10. 23

1 차 심사일 : 2025. 11. 24

게재 확정일 : 2026. 01. 07

Coming Out and Mental Health among Korean LGBTQ+ Young Adults: A Latent Profile Analysis according to Disclosure Targets

Gitaek Park Hyaе Young Yoon

Keimyung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This study examined whether latent profiles could be identified based on the targets and levels of coming out among young sexual minority adults (LGBTQ+) living in South Korea, and whether the identified latent profiles differed in quality of life, workplace difficulties, depression, and other mental health-related variables. In addition,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internalized homophobia, time taken to accept their identity, and sense of connection to the LGBTQ+ community predicted latent profile membership. Using data from the 2021 Survey on Social Needs and Living Conditions of Young Sexual Minorities, latent profile analysis was conducted with a sample of 1,570 participants, resulting in the identification of five latent profiles. Internalized homophobia and community connectedness significantly predicted latent profile membership, whereas time taken to accept their identity did not show a significant effect. Furthermore, significant differences across latent profiles were found in depression, workplace difficulties, and subjective happiness; however,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overall quality of life. Notably, the fifth profile—characterized by selective disclosure to workplaces, mental health professionals, and medical providers (“workplace-professional disclosure type”)—exhibited the highest level of depression, while also reporting the highest level of subjective happiness and the lowest level of workplace difficulties. Based on these findings,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coming out experiences and mental health among young sexual minorities in South Korea are discussed, along with the study’s limitation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 LGBTQ+, Coming out, Subjective well-being, Mental health, Latent Profile Analysis